지역경기 넘어선 호실적… 지방금융 전성기 이끈 '3金시대'

〈김지완·김태오·김기홍〉

BNK금융
비은행부문 이익 절반 넘게 증가
DGB금융
그룹 수익원 다각화로 수익 개선
JB금융
상반기 순수익 지난해比 15%↑

지방금융그룹 실적표

	BNK금융 김지완 회장	DGB금융 김태오 회장	JB금융 김기홍 회장
그룹당기순이익(지배지분)	3,512억원	2,016억원	2,041억원
ROA(총 자산이익률)	0.73%	0.60%	0.92%
ROE(자기자본이익률)	9.01%	9.11%	12.4%
BIS 총 자본 비율	13.32%	12.79%	13.97%
보통주자본비율	9.66%	9.89%	9.62%
그룹 총자산	1,273,951억원	779,220억원	465,374억원

자료/각사

지역경기 악화에도 지방금융그룹 3사(BNK·DGB·JB)가 올 상반기 양호한 영업실적을 기록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중금리 하락으로 주 계열사인 은행권 순이자마진(NIM)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예상밖 성적이란 평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지완 회장이 이끄는 BNK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은 3512억원으로 지방금융 중 가장 많았다. 김태오 회장의 DGB금융과 김기홍 회장의 JB금융은 각각 2016억원, 2143억원의 순익을 달성하며 지주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방금융 '3김(金)시대'를 맞아 모두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BNK금융, 비이자이익 확대로 1위 유지

BNK금융의 상반기 순이익(3512억원)은 전년 대비 1.8%(64억원) 감소했지만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지난해 대출채권매각이익으로 인한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안정적인 흐름세로, 연간목표액 6000억원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NK금융은 지역경기악화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로 은행부문의 건전성관리와 비은행부문의 수익성 개선을 꼽는다. BNK금융의 비은행부문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4%에서 16.1%로 증가했다.

계열사별로 보면 올 상반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순이자마진 하락으로 각각 2227억원, 1204억원의 순익을 내 전년 대비 586억원(5.0%) 감소했다. 반면 BNK캐피탈 393억원, BNK투자증권 127억원, BNK저축은행이 112억원을 달성해 비은행부문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30억원(58.4%) 늘었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전년 말 대비 각각 0.18%포인트, 0.11%포인트 상승한 13.32%와 9.66%를 달성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그룹 내부승급법이 적용되면 자본비율도 추가 상승해 건전성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실 우려 기업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은행부문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증권 및 자산운용에 대한 증자와 IB부문 특화 영업을 하고 있어 순이익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DGB금융, 하이투자증권 M&A효과 톡톡

DGB금융은 하이투자증권 인수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대구은행에 치중된 그룹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염가매수차익 등 부수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

올 상반기 DGB금융은 2016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지주사 설립 이후 상반기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주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순이익은 순이자마진이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한 1782억원을 달성했다. 반면 비은행 자회사인 하이투자증권, DGB생명의 상반기 순이익은 각각 307억원, 152억원(660%)을 달성했다. DGB캐피탈 역시 147억원(19.5%)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로 감소한 대구은행의 순이익을 하이투자증권을 포함한 비은행부문이 보완한 셈이다.

DGB금융 관계자는 "전년 말 인수한 하이투자증권을 포함한 비은행 계열사의 견조한 이익으로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대구은행은 대출 성장세가 회복되고, 건전성 지표 또한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향후 금리 하락 추세가 진정되면 순이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JB금융, 광주은행 자회사 편입 효과

JB금융은 광주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한 것이 최대실적을 이끌었단 평가다. 앞서 JB금융은 광주은행을 인수할 당시 지분 56.07%였지만 지난해 말 잔여지분 43.03%를 인수하면서 올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광주은행 실적이 모두 반영됐다.

JB금융 관계자는 "주식교환에 따른 광주은행 100% 자회사 편입 효과로 비지배주주 순익이 감소한 부분이 이익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JB금융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21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했다. 지주사 설립 이후 최대규모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순이익은 각각 707억원, 91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각각 25.7%, 1.3%증가했다.

김기홍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보통주자본비율(9.5%)을 최대한 빨리 달성해 M&A에 본격 나설 것"이라며 "경영체질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실행력 높은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 지속가능한 수익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B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지난해 대비 0.72%포인트 상승한 9.62%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KEB하나은행 퇴직연금 성장률 1위

6월 말 기준 적립금 13.5조 달성
1대1 손님 맞춤형 서비스 진행

하나금융그룹 서울 을지로 사옥 전경.

KEB하나은행의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적립금 성장률이 지난해 말 대비 7%를 기록해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순증금액은 8872억원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3조5000억원을 달성했다.

KEB하나은행의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17년께 1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년 5개월 만인 지난 5월 말에는 13조원을 달성했다. 이어 6월 말을 기준으로 13조5000억원을 달성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날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연금시장에서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은행, 증권, 보험을 포함한 그룹기준으로도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적립금 순증 실적은 9082억원을 기록해 금융그룹 중 1위를 달성했다.

KEB하나은행의 이 같은 성장은 올해 초 은행권 최초로 연금사업본부를 신설해 혁신동력을 강화한데 이어 6월에 이를 연금사업단으로 격상해 연금영업에 집중하고 시장을 적극 공략한 결과다. 또한 하나금융투자 역시 지난 7월 연금사업팀을 독립부서로 격상해 조직개편을 하는 등 그룹내 관계사간의 원활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KEB하나은행은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하에 최근 관심이 많아진 퇴직연금 저수익률 문제에 적극 공감하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고금리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신설한 연금손님 자산관리센터를 통해 적극적인 만기관리 및 저금리 상품 리밸런싱 등을 진행함으로써 1대 1 손님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또 퇴직연금 수수료도 대폭 인하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자산관리 수수료율은 0.02%를 일괄 인하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50% 인하했다. 6월에는 청년가입 손님의 경우 최대 85%, 연금수령 손님의 경우 최대 95%까지 IRP수수료를 인하했다.또한, 누적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IRP수수료 면제, 표준형DC 운용관리 수수료 0.10% 일괄 적용 등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도 추진 중이다.

또한, 누적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IRP수수료 면제, 표준형DC 운용관리수수료 0.10% 일괄 적용 등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도 추진 중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

NH농협은행 범농협 사업 연계, 핀테크 산업 육성 나선다

NH디지털혁신캠퍼스 참가자 모집

NH농협은행은 오는 28일까지 범농협 사업과 연계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NH디지털혁신캠퍼스 챌린지 해커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 대회는 기업부문과 개인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기업부문은 예비창업자나 IT기업, 일반기업체 임직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부문은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이벤터스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약 3주간의 온라인 예선기간 동안 사전 과제에 대한 기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본선참가자로 선발되면 9월 6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본선을 치르게 된다. 기타 행사 내용은 NH농협 인터넷뱅킹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AWS(아마존웹서비스)와 연계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핵심기술과 범농협 사업 관련 사전교육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결과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입상자에게는 NH농협은행장 표창을 비롯해 총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기업부문 참가자에게는 서비스 상용화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NH디지털혁신캠퍼스의 입주 우선 선발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부문 참가자에게는 NH농협은행 신규채용 전형 서류심사를 면제해준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범농협 사업과 관련된 혁신 핀테크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신사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농협은행과 함께 디지털 비전을 꿈꾸고 실현하고자 하는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은행 국내은행 최초 고객알기 제도 구축

금융범죄 예방 위해 전담팀 신설

우리은행은 올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가상호평가와 강화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국내은행 최초로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인 고객알기(Know Your Customer, 이하 KYC) 제도를 구축하고, 현재 460개 영업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를 오는 19일 전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구축한 KYC 제도는 사기계좌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의 모든 사업그룹 내에 전담 업무팀을 신설해 영업점 거래를 1차로 확인하고, 확대된 자금세탁방지 부서의 전문인력을 통해 2차로 확인하며, 검사실의 독립적인 검사 인력을 증원해 3차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사업그룹 내 KYC 팀의 심사와 승인을 통해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미국, 영국, 홍콩 등의 해외 금융사는 국내 금융사보다 먼저 사업그룹 차원의 KYC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사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필수적인 내부통제 제도다.

이번 KYC 제도 시행으로 우리은행은 영업점 방문 고객에 대해 본점에서 고객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거래를 요청한 것은 아닌지 점검한 후에 고객과 거래한다.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7월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을 110여명으로 증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에도 조직개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센터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에 대한 충원과 교육을 강화했다"며 "사업그룹내 KYC 승인 절차 도입은 국내 금융사도 선진 내부통제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국내 은행의 첫 사례"라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